

# 12월 4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0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널뛰기’ 뉴욕, 약재                      딛고 이틀째 상승                      [다우: 8,591.69pt                      (+ 2.05%)]</p>	<p>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지원책에 힘입어 주간 모기지 신청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음. ‘사이버 먼데이’ 매출의 선전 소식에 유통주도 올라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음. 경제지표 약재에 떠밀려 하락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선 뒤 베이지북 발표를 앞두고 하락권으로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 반전에 성공했음.</p>
<p>모기지신청건수 두배                      급증</p>	<p>연준의 지원책에 힘입어 모기지 금리가 급락, 지난주 모기지 신청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냈음.</p>
<p>사이버먼데이 매출 ‘역                      대 두번째’</p>	<p>추수감사절 다음주 월요일을 지칭하는 ‘사이버 먼데이’ 미국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은 역대 두번째 수준을 기록함.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1일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은 8억 4,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음. 이에 따라 유통주가 상승했음.</p>
<p>11월 서비스업 경기 ‘                      사상 최악’</p>	<p>미국의 11월 서비스업 경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11월 서비스업(비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44.4에서 37.3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음.</p>
<p>ADP 11월 민간고용                      25만명↓ ‘7년 최대폭’</p>	<p>ADP는 미국의 11월 민간부문 고용이 25만명 감소했다고 전미고용보고서를 통해 밝혔음. 이는 지난 2001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 수준임. 그러나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에 부합한 수준임. 부문별로 제조업 부문 고용이 15만 8,000명, 서비스업 부문 고용이 9만 2,000명 감소했음.</p>
<p>베이지북 "美 전지역                      경제난 심화"</p>	<p>미국의 경기둔화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이날 미국내 12개 지역 연방은행의 경제조사를 종합해 만든 베이지북을 통해 "12개 지역 모두에서 경제 활동이 둔화됐다"고 밝혔음. 연준은 ‘경기후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베이지북의 전반적인 톤은 우울했다. 앞서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바 있음.</p>
<p>유가 하락 ‘4년 최저’                      [WTI: \$46.96                      (-\$0.17)]</p>	<p>국제 유가가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락, 4년래 최저치로 떨어졌음.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MYN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1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7센트(0.4%) 하락한 46.79달러로 마감하며 지난 2005년 2월 이후 최저가 기록.</p>

제목	주요 내용
프랑스 4일 200억유로 경기부양책 공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자동차 및 주택건설 분야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0억유로(약253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계획. 특히 이 경제 활성화 계획에는 기존의 중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1천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
일본 마이너스 성장 탈출 안간힘	일본 정부가 38조6000억엔에 달하는 1, 2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고용 활성화를 위해 10조엔, 기업 담보대출 지원을 위해 3조엔 등 대규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3일 보도.
中, 위안화 절하 본격 나서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향후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한 총 9개 정책 방안을 발표. 특히 환율 조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언급해 향후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을 시사.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국무원이 금리, 기준율, 환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해 은행권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긴급금통위결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금에 대해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공개대상조각 대상증권에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포함하기로 결정.
외화보유액 2천억달러로 외환시장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 이란 기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외화보유액 2천억달러 사수를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KB지주, 국민은행 5,000억 증자	KB금융지주가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액 국민은행에 투입할 예정.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역시 우리은행 7,000억원, 하나은행 4,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위해 각각 회사채를 발행
C& 결국 워크아웃, 결정적 이유는	무리한 M&A와 조선, 건설경기 침체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맞이함. 향후 채권단의 판단에 따라 C&그룹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